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3. 빵과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 4.Transform World India 2006 | 6.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 9. 노래 중의 노래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6년 12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97호**

성탄절 밤의 기도



예수님은 오늘밤
세상의 별빛으로 오신다
갈망하는 자여
복되도다

예수님은 오늘밤
동방박사의 눈빛으로 오신다
갈망하는 자여
평화롭도다

예수님은 오늘밤
너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신다
갈망하는 자여
이뤄지도다

예수님은 오늘밤
시름겨운 나의 작은 창문으로 오신다
갈망하는 자여
기쁘리도다

예수님은 오늘밤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오신다
갈망하는 자여
채워지도다

예수님은 오늘밤
나뭇잎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오신다
갈망하는 자여
축복하도다

시. 최 규 창

이달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춘천과 강원도

시장과 도지사를 축복하시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고 정의롭게 시정과 도정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도록.

· 2014 평창 동계올림픽

강원도의 미래를 밝게 열게 될 평창동계올림픽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 진행되는 알펜시아 계획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 새롭게 선출되는 교계의 지도자들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기독단체들이 은혜 속에 신임원이 선출되었는데, 믿음으로 연합활동을 펼쳐가며 춘천의 복음화에 새바람을 일으켜 성시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 춘천시민 열린 포럼

지역현안의 난제 해결을 위해 출발한 열린 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지역 발전에 주춧돌이 되도록.

· 춘천 성시합창단

모집된 단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신실한 성시합창단을 통해 춘천을 믿음과 생명의 문화도시로 변화시키도록. 그리고 더 많은 단원이 모집될 수 있도록.

· 강원외고 유치실패의 대안

혁신도시유치 실패에 이어 외고 유치 실패, 이로 인한 패배의식을 받은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함께 도시를 변화 발전시킬 바른 전략과 대안이 제시되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산모의 관리〕
쾌적한 환경, 체계적인 식단, 산후관리(온열안마기 · 원적외선매트 · 골반교정기 등 자체 치료실 및 찜질방 시설 등) 및 산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아기의 관리〕
위생적이고 안전한 아기방, 전문의료진의 신생아 관리

〔진료지원 시스템〕
호산부인과의 진료지원 및 전문산후 재활치료 서비스 등

행복을 만들어가는 **호호산후조리원**

엄마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거두부영Ⓐ 농협하나로마트 옆 Tel. 033)261-1064~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특 집

2007년을 이끌어갈 기독단체 지도자들의 비전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장의 인사



회장 한 균 목사(명화교회)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는 교역자 간의 친목을 통해 춘천 복음화를 이루려는 취지로 1959년 결성 된 이후 지금까지 47년이란 긴 세월을 이어져 내려온 최장수 춘천기독교연합 기관입니다. 초창기 이후 즐곧 춘천 교회들의 연합을 이끌어오며 활발히 움직여 온 이 기관이 안타깝게도 근래에 와서는 교역자들이 개교회 중심으로 돌아서며 연합운동에 소홀한 결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느낌입니다. 하지만 춘천 성시화라는 큰 사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춘천의 모든 목회자들이 중심에 서서 연합운동을 이끌어야 할 때가 왔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본인은 부족하기 짝이 없으나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교역자들의 친목을 위한 모임의 활성화

춘천의 목회자들이 대략 350명으로 추산되지만 연합회에 참석하는 수는 고작 20~30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친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익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세미나 및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는 친목모임을 추진하여 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교역자 상조기금 조성

춘천의 교회 가운데 미자립 상태로 극한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목회자들 스스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을 매월 도울 수 있도록 상조기금을 조성을 위한 다음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춘천지역의 모든 교회가 교회 형편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매월 정기적으로 상조회비를 납부하고, 그 중 80%를 매월 어려운 교역자들을 선정하여 지급하며 20%는 연합회 운영을 위해 사용한다.

2) 교회의 형편에 따라 5만원, 3만원, 1만원의 회비를 매월 납부하게 될 경우 대략 5만원 교회 50교회, 3만원 교회 100교회, 1만원 교회 150교회로 예상되며 매월 약 700만원이 수납되고 그 중 80%인 560만원은 매월 교역자들에게 지급, 나머지 140만원은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 교역자 경조사 동참 운동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교역자들의 경조사에 교역자들이 최대한 동참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교역자들 간에 상호 신뢰와 사랑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 춘천기독교 연합사업 동참 운동

각종 연합 사업과 집회에 목회자들이 적극 동참하여 기독교 연합운동에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이 쉽지는 않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전개시켜 제도화 할 수만 있다면 장차 춘천 성시화에 필요한 무한 동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회장임기 동안 이 운동에 성실히 헌신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모든 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춘천의 교회들이 능력화 되고, 기독교연합운동이 활성화 되며, 춘천성시화의 비전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장의 인사



회장 이무식 장로(석사교회)

본 장로회는 33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본인은 금번 장로회 회장의 직무를 인수 받으면서 상당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임 받은 직임은 명예도 자랑도 아님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장로회가 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기독교는 경전 자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엮어져 있으며 역사의 분기점도 주전(BC)과 주후(AD)로 구분되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은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를 거울로 삼아 현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미래를 현재보다 더 아름답게 설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제20대 회장으로서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일 할 것인가를 나누면서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실천하는 장로회가 되어야 합니다.

1) 형식을 초월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장로회

2) 회원들 하나 하나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장로회

3) 청교도적 신앙인이 되는 장로회

4) 구원이 필요한 소외된 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장로회

2. 연합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장로회가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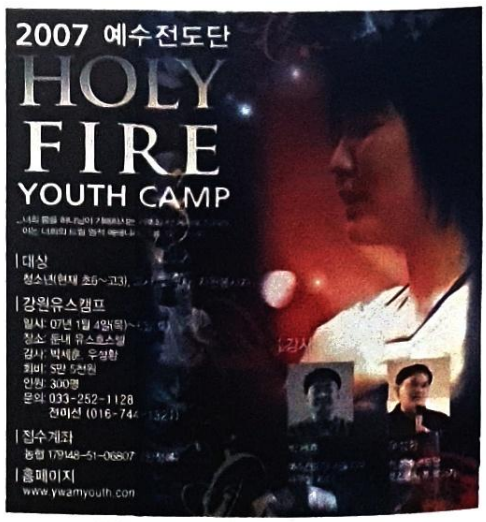
1) 모이는 목적과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장로회

2)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유대관계를 철저히 하는 장로회

3) 춘천을 성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장로회

4) 항상 죽음을 초월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장로회

위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미래에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 마음마다 하나님 사랑 가득"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 4·5·6·7세 연령별 선착순 모집
♣ 저소득층 자녀, 목회자 자녀, 형제 감면 혜택
♣ 정규반(오후2시30분까지), 종일반(오후6시까지)
♣ 특기교육: 영어(매일교육)·피아노·미술·체육·음악·수학·과학특별교육·놀이학습지도
♣ EQ발달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프로젝트 수업
♣ 자연학습장 운영, 실내외 놀이터, 넓고 쾌적한 장당
♣ 어린이 눈높이의 신앙교육(주1회 어린이예배)

* 신앙과 인성의 표준인 성경말씀의 교훈을 따라 기도의 어머니처럼 전문적인 전인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문의: 033)255-5776, 010-9533-5776
◆ 위치: 춘천시 후평2동 C.C.C.아카데미아우스 내(한신아파트 옆)

제시뉴욕·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숙녀복 전문

패·션·리·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운영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빵과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이번 시간은 기아대책 춘천지회장 원종국 목사(춘천제일감리교회 담임, 경목회장)와의 인터뷰입니다.



원종국 목사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목원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플러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D.Min)와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박사학위(Ph.D.)를 받았으며, Univ. of South Carolina College of Social Work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M.S.W)를 받았다. 고부교회와 북성교회, 선향교회, 횡성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였고, 2003년 7월 현 춘천제일교회에 부임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과 빵을 통해 지역을 총체적으로 섬기길 원하는 원종국 목사로부터 기아대책 춘천지회의 사역과 비전을 들어보자.

먼저, 기아대책 춘천지회장과 경목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글쎄요. 이것이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아대책에 관계한 것은 횡성에 있을 때부터고, 춘천에 와서 기아대책기구가 강원도에서는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아대책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빵과 더불어 복음을 준다는 면에서 어려운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에게 가장 와 닿을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떡과 복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971년 래리 워드 박사에 의해 창립된 이래,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11개국이 기아대책이란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0여명의 선교사들과 1,700여명의 스탭이 세계 40여 개국에서 긴급구호와 개발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9년에 설립되어 한국이 최초로 해외를 돕는 나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빵과 더불어 복음을 주는 것은 곤고한 사람들에게 가장 와 닿을 수 있는 사역이다."

"작은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나라를 확장시키자"

현재 춘천지회의 상황과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횡성, 강릉, 속초 등에 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지회는 이미 결성되어 있었지만,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작년에 재 설립하면서 각 교회의 목사와 장로 32분을 이사로 모셨습니다. 현재는 활동보다는 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해외 사역도 힘을 합하여 진행하지만, 더불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목회자가 서로 네트워크해서 사회복지를 자생적으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기아대책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호흡조절을 하는 중이죠. 금년에는 회원모집과 기구를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는 '사랑의 언탄운동'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향한 사회복지사역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운동인 DNA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DNA운동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나라와 민족을 제자삼기' 위한 전세계 연합운동입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말씀의 실천을 목표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는 운동이에요. DNA운동의 일환으로 '겨자씨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죽어야 삽니다. 요한복음 12:24의 말씀처럼 작은 씨앗이라도 죽어야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2)작은 섬김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3:32의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섬김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킵니다.

3)균형 잡힌 섬김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도, 교회도, 지역사회도 지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섬김이 필요합니다.

4)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0:45의 말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1200만 성도와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지역사회는 우리를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성시화 운동이 아닐까요? DNA운동은 성시화 운동과도 통합니다.(웃음)

교회가 세상에 복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빵을 나누는 이웃 사랑은 복음을 더욱 복음되게 하는 일이 되겠군요. 혹시 교회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시다면

현재 제일교회에서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6시 30분 교회 현관 입구에 쌀 3포를 놓아두고 누구든지 필요한 분은 가지고 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3년간 지속하고 있는데 소리 없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재정은 교인들이 봉급의 1/100을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에 등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인들은 항상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지요. 이런 경우에는 한 분이 쌀 50포를 드리기도 해서 수십 가정을 돕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기아문제에 대한 복지마인드를 저변에서 찾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기아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빈곤가정자녀들을 위한 홈스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결손가정이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아이들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5명을 받아서 방과 후에 학습과 신앙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친 가족과 같은 돌봄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에 기아대책에서는 담당선생님을 지원해주고, 교회에서는 모든 먹거리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빈곤 아동의 상태를 보면 학습에서 현격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단순한 돌봄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월 25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학습지로 지식을 연마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빈곤문제가 교육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빈곤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면 계속 빈곤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동들의 빵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도 국내외의 결식아동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맞습니다. 교육은 아동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3학년 아이들 중 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동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사랑과 교육을 잘 제공해서 그들도 이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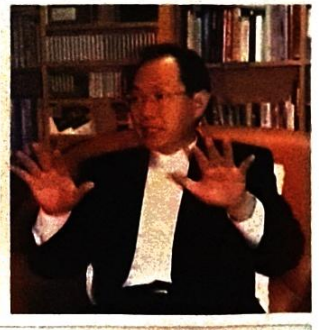
덧붙여서, 내년 전반기에는 기아대책에 관계된 분들을 대상으로 기아대책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현장감 있게 맛볼 수 있도록 네팔 쪽으로 현지 선교지를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후반기에는 협력업체 도움을 받아 바자회에서 모은 자금으로 지역사회와 해외 현지에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아대책 춘천지회에서는 백만원을 결식아동을 위해 춘천시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와 춘천의 크리스천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면, 개신교는 삶을 나누는 것에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돌보는 일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또 교회들도 잘 연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큰 교회가 중소교회를 잘 돕고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섬김으로 하나 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면 훨씬 목적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창출해 낼 수 있겠죠. 또한 우리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운동을 일으키려면 틈새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관심이 소외된 곳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역해야 합니다.

본인이 과분하게 금번 경목회장이 되었는데, 명목만 유지하는 경목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을 선교하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춘천의 교회들이 복음화 사역과 나눔의 사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창신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공감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사역이어야겠지요. 춘천은 성시화 1번지입니다. 교회가 협력하는 분위기를 잘 마련하면 더불어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일 시 : 2006년 11월 25일 진 행 : 조영춘 최영조
장 소 : 춘천제일감리교회 글정리 : 최영조 · 사진 김미경

Transform World India 2006

에 다녀와서

이 병 철 목사(주향교회)





옴 초에 춘천의 몇몇 청년 사역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춘천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뿐 아니라 균형 잡힌 영성을 갖고 민족과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해 나가는데 도움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個) 교회의 한계를 넘어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춘천 청년 포럼'을 발족하게 되었다. 지난 5월 청년 포럼 첫 집회 후에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영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선교사를 통해 루이스 부시(Luis K. Bush) 목사님을 만났다. 루이스 부시 목사님은 변혁적 차원에서 선교를 접근하는 Transform World세계 변혁 선교를 창시하여 전 세계를 네트워크 하는 중이었다. 마침 춘천을 방문 중이던 부시 목사님과 청년 사역자들이 만나면서 Transform World의 Youth Focus Group(청년 분과 모임)을 소개받게 되었고, 춘천의 청년 사역을 세계 여러 나라와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Transform World India 2006'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춘천의 성시화 운동이 Transform World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기에 조영춘 사무총장과 김성호 목사 그리고 엄기증 박사가 참여하였고, 사랑의 교회 세계 선교부와 포항 성시화를 위해 적극 섬기셨던 전 포항시장 정장식 장로 내외,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허문영 박사가 함께 하였으며, 내년 대회 준비를 맡은 황성주 박사도 나중에 합류하였다.

Transform World India 2006'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인도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한창 성장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인 하이데라바드의 O.M 선교 센터에서 열렸다. 약 400~500명 중에 절반은 자국인들이었고 나머지는 40여 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었다. 모임은 전체 집회와 분과별 모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전체 집회에서는 주로 인도의 영적, 사회적 변혁(카스트 제도) 과제를 놓고 의식을 공유하고,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어 기도했으며, 각종 인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 있어 인도를 느끼기에 좋은 시간이었다. 전체 집회 후에는 약 20여개의 분과별(Focus Group)로 모임을 갖고 자신들 사역의 노하우들을 나누거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각의 관심 분야별로 각국의 사례 발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동시에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현황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모여 아직 낯선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망을 나누 데는 하나 된 모습이었다.

TWI에 참석하면서 특별하게 느낀 점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1.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 이영길 선교사님이 비하르의 사역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인도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인 비하르에서 십여 년 등안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사례 발표가 10여분 정도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짧았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설득력 있는 메시지, 겸손하면서도 힘 있는 그의 증거는 한국 선교의 위상이 세계 선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늠하게 해주었다. 세계 선교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국 선교사가 가장 감동적인 사례 발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함께 참석한 우리에겐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선교사님의 사례 발표 이후에 인도의 한 영적 지도자가 단상에 올라서서 만약 비하르가 변혁(Transform)이 되면 인도 전체가 변혁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하르가 변혁되기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지를 말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이영길 선교사가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말할 때, 우리에게 밀려온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만약 비하르 선교가 성공하면 인도 전체가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인도 지도자의 멘트 속에 한국 선교의 새로운 도전과 책임감이 첫 인도를 밟아 인도를 체 느끼기도 전에 이미 감립한 열기로 다가왔다. 또한 분과별 모임에서도 전 포항 시장이셨던 정장식 장로님이 포항 성시화 운동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크게 감사할 일이었다.

2. TWI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도의 여러 선교 단체들과 인도의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은 인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참석한 선교사님이 전해주었다. 그만큼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네트워크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서로의 장벽을 넘어 만나기만 한다면 그곳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서로가 지체임을 확인하게 되며, 또한 서로를 통해 새로운 사역의 장을 펼쳐질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TWI는 바로 그런 장(場)이었다.

3. 대회 일정이 끝나고 며칠을 더 인도에 머물면서 몇몇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유능한 한국 선교사님들이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오면서 세계 선교는 어느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파트너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선교의 현장에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는 기도든, 물질이든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동참할 때 가능한 것이기에 한국에서의 후원 역시 의식을 갖고 제대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에서 'Transform World Korea 2007'이 열리는데 때마침 1907년 평양대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지라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내년 'Transform World Korea 2007'을 통해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우뚝 세워지길 소원한다. 한국 교회 위에 다시 한 번 불이 닥칠 성령의 쓰풍이 Transform World Korea 2007을 통해 일어나고 온 민족과 열방에 번지기를 열망한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성시화의 비전을 갖고 꾸준히 달려온 춘천 성시화 운동이 부흥의 씨앗으로 쓰임 받게 될 줄 확신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클리비 연합

'클리비'란 '로임 클리비'의 약자로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클리비 연합에 소속된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은 이 이름에 맞는 삶과 사역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각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춘천 지역
강남온누리교회(김원중 목사) - 전도소그룹과 알파코스사역
에강교회(정명훈 목사) - 교대사역과 IVF 학생사역
에딤교회(권기찬 목사) - 성경묵상과 성경번역선교회 등 선교사역
주향교회(이병철 목사) - 제자훈련과 장애우사역
춘천중부교회(김덕용 목사) - 알파코스와 G12사역
화목교회(문충식 목사) - 사회복지 및 어린이(화목어린이집)사역

■ 원주 지역
서광교회(송점범 목사)

■ 여주 지역
한우리교회(김민철 목사)

흰돌목회자 기도선교회
신년축복성회

강사 서 달 수 목사(신천중앙교회)

▶일 시 / 2007년 1월 1일(월)~3일(수)까지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장 소 / 춘천은혜장로교회(지용찬 목사)
T.033)241-4316

흰돌목회자 기도선교회 회장 남궁상규 목사

한 교회 비전과 기도운동



[춘천성시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목사]

성도는 우주적 교회인 주님의 몸에 한 지체이면서 또한 개교회에 속하여 주님을 닮아 가는 훈련을 하고 있다. 물론 교단이 있어 신학적 특성이 다르고 각 교회들마다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주안에서는 한 몸 안의 지체이며 주님은 모두를 하나로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도시 안에서의 모든 교회들도 여러 개체가 아닌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이론적으론 잘 알면서도 도시안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 그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물론 각자의 독립성과 자립개척의지 등 선의의 경쟁에 의한 교회의 확산에는 큰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반면 개교회 중심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교회들 속에 판을 치면서 형제의식은 사라지고 교회의 원 모습이 파괴되는 아픔을 안게 된 것이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회에 소망과 빛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사회인들의 지탄을 받거나 교회의 마땅한 지도력과 존경심을 잃게 되는 큰 우를 범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근본적인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하나 됨의 거룩한 모습을 도시 안에 회복하며 이기주의적 교만의 자세를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에스겔 37장은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흩어져 있을 때는 마른 뼈 다귀이다. 지역을 죽음의 골짜기로 만드는 원흉이 된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희망도 꿈도 없고 교회가 사회 속에 아무 힘도 역할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도시 안에 근본 모습인 한 교회 운동을 전개하여, 말씀을 따라 이기주의를 청산하고 지체의식과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살이 덮임 같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힘줄이 돋음같이 강건케 하시며 후엔 생기, 생수 같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치료가 시작되고 은혜로 새 힘을 얻게 되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지역의 이름을 몰아내고 이 땅을 가나안처럼 변화시킬 증심체, 생명의 방주로 강력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춘천의 교회들이 가야할 방향이며 꿈이며 비전이다.

이제 한걸음씩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에스겔은 이를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보이며 길을 일러주고 있다.

중보기도는 서로가 다른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어떻게 서로 다른 교단과 차이점이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꽂치우라

주여 이 한국의 심장 춘천이 기도 속에 새로 일어나게 하소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할 중보기도, 그 거룩한 사랑의 불꽃이 붙게 하소서!

우리의 이기주의와 무관심, 원망을 불사를 생명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하여도 그대로 되게 하는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를 알고 확신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일꾼들이 이젠 모일 때이다. 다른 것이 아닌 기도로 하나가 되자.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강력함과 완악함에 묶여 있어 종교적 자존심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꼼짝하지 않던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주님은 오직 기도를 당부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던 마가 다락방의 기도처는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생명터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이 방법과 전략이 우리시대에도 간절히 요구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젠 성시화 운동본부의 중심은 중보기도 운동체가 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에스겔의 골짜기가 춘천이 되도록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한다면 춘천은 희망이 있다. 빛으로 일어나며 이 땅을 통해 부흥의 물결기가 한반도를 적시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리라고 확신한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의 환상을 보며 민족복음화의 꿈을 꾸고 도전하게 만들었던 도시 춘천, 이젠 그 환상이 현실이 되도록 다시 도전해야 할 것이다. 도시가 희망을 잃고 있다고 낙심하긴 아직 이르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불평하는 것은 교만이다.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방안을 연구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선권은 기도에 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전략과 문제의 개선점들이 연구, 제시되며 발표되어 왔지만 아직도 춘천은 진정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미게발, 난게발 지역이다. 지금 우리는 개척시대의 출발점에 다시 서 있는 것이다. 교회들 속에 만연되어 있는 이기주의가 깨어지고 경쟁의식이 무너지며 물량주의와 숨겨 있는 탐욕주의가 청산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다.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라고 하셨지만 교회는 심증적으로 이 세대를 도리어 본받다가 분열과 원망과 미움 속에 세상의 종이 되고 만 것은 아닐까? 이젠 돌이켜 하나운동 한교회운동이 유일한 대안이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와의 동역의식을 회복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형님처럼 따르며 존경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장로교회는 감리교회를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를 서로 품고 존중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다. 답답해할 이유도 없다. 기도를 통해 돌파구를 열기만 하면 희망은 있다. 분명 길은 있다.

이를 위해 성시화 운동은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성시화 운동본부는 중보기도 센터가 되려 한다. 기도를 통한 전략과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모든 교회의 자원하는 목회자와 도시를 위해 기도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불꽃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꿈이 있는 분들은 함께 모이길 제안해 본다. 기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함께 모으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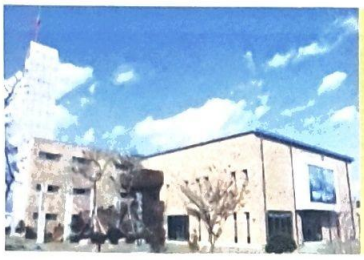
2007년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임원명단

- 회 장 : 원 종 국 목사 (제일감리)
- 부회장 : 이 춘 일 목사 (베드로순복음)
  조 영 춘 목사 (예광침례)
  김 태 권 장로 (동부장로)
- 사무국장 : 김 혜 영 목사 (춘천중앙장로)
- 총 무 : 이 병 철 목사 (주항장로)
- 서 기 : 백 승 국 목사 (세계로장로)
- 회 계 : 정 명 훈 목사 (예강장로)
- 감 사 : 정 상 문 목사 (동원감리)
- 협동총무 : 소 영 생 목사 (만리동침례)
  송 용 학 목사 (신광장로)
  송 문 식 목사 (은성장로)
  권 기 호 목사 (시민장로)
  정 재 호 목사 (늘사랑장로)
  서 종 신 장로 (평강감리)
  한 명 수 장로 (창대감리)
  김 원 호 권사 (석사감리)
  임 영 일 집사 (춘천침례)

한국교회 대부흥100주년 2007년 신년목회 준비세미나

※ 강원지역 12월 5일(화) 오후 3시~9시
※ 장소 : 춘천주앙교회(동부A 후문 ☎256-3927)
※ 주최 :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 1부 개회예배(15:00~16:00) - 문송식 목사(화목교회, 교경협 공동총무)
  "부흥을 사모하라"
- 2부 특별강의(16:00~18:00) - 제이석 목사(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원장)
  "2007년 역동적인 소그룹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 3부 저녁식사(18:00~19:00) - 주항교회 제공
- 4부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저녁집회(19:00~21:00)
  이상만 목사(오이코스코리아 원장)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일심교회(이순주 목사)편입니다

일심교회는 1984년 1월, 이순주 목사(전선자 사모)를 중심으로 춘천시 후평동에서 가족 5명이 사과 궤짝 하나를 놓고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부흥 발전, 현재 동면 장학리에 2,000여 평의 부지에 아름다운 자연주의 전원교회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다. 일심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표어 아래 '하나님을 경험함에 하나 된 교회, 세상을 축복함에 하나 된 교회, 미래를 열어감에 하나 된 교회'라는 3대 비전을 걸고 지금까지 나아왔다. 일심교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여정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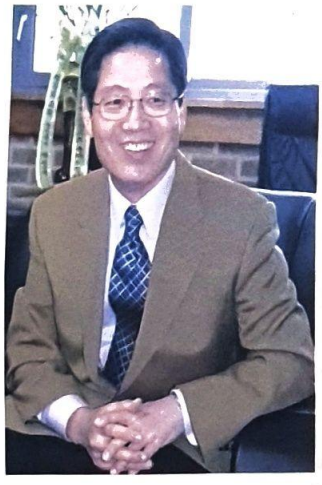
이순주 목사와 일심교회

이순주 목사는 전남 보성이 고향이다. 녹차 밭으로 유명한 보성 사람답게 그를 오래 만난 지인(知人)들은 누구나 '녹차 향처럼 그윽한 인격을 지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목사를 평가한다. 이 목사가 처음 전임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늘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함께 하는 전선자 사모의 영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홍천군 내면 문암리가 고향인 전선자 사모의 가계는 4대째의 기독교 가정, 목사 등 목회자만도 100여명이 넘을 정도로 기독교 명문가문(?)이다. 이 목사는 전선자 사모와 결혼 후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특별한 계기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목회자가 아닌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 집사 시절, 병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대신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인연이 되어 전임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춘천 후평동 1단지 앞에서 20평의 건물을 임대하여 가족 5명이 사과 궤짝 하나를 놓고 시작한 것이 일심교회의 출발이다. 일심교회는 이 목사의 목회 관에 따라 일체의 교단과 타교회의 도움 없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 목사의 열정적 목회는 불과 개척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예배실이 좁아 예배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열매를 가져왔다. 하지만 개척 1년여의 기간은 경제적으로 이 목사에게나 일심교회에 있어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다고 이 목사는 회상한다. 이 목사의 목회 관은 '사람의 도움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직접적 도움으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었는데, 목회 초기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풀무불의 연단을 경험하는 시기였다. 이 목사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갔다. 이 목사의 모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면 하나님이 교회를 넉넉히 채우신다는 믿음이 이 목사의 심장에 가득하다.





일심교회와 건축

현 일심교회는 등면 장학리 벌판 2000여 평의 대지 위에 아름답게 서 있다.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지기 위해 자연주의 건축 관을 채택했다. 자연을 닮은 실내와 외벽의 인테리어가 그것을 말해준다. 성전 건축은 처음 예상과는 달리 토지 구입비를 제외하고서도 20억 원 가까이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다. 이를 위해 릴레이 기도와 금식기도, 가정별 기도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다. 기도의 가장 큰 결실은 하나님이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저렴하면서도 최고급 자재가 사용된 것이 이 때문이다. 4개월간의 공사를 통해 아름답게 지어진 감사에 배는 감동과 감격, 그 자체였다.

이 목사는 교회 건축 이후에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사랑으로 뭉치게 되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는 많은 교회들이 건축이후에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는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일심교회는 아래세대를 위한 배려에 신경을 많이 썼다. 2층 전체가 아래세대를 위한 도서실인데, 춘천의 사설 도서실 중에서는 제일 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소년들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되었다.

일심교회와 비전

일심교회는 '목요 영성원'으로도 유명한 교회이다. 목요 영성원은 춘천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발굴하여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 목사와 전선주 사모가 공동으로 섬기고 있다. 지도자들과 핵심 평신도들의 기도훈련, 은사계발, 목회훈련, 내적치유, 인간관계훈련 등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있는데, 2000년 5월에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찬양사역으로도 춘천의 청소년들을 섬겨온 일심교회는 1989년 '제1회 춘천 학생중창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아름답게 청소년들을 지원, 발굴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이 목사는 현 장학리 예배당 완공을 시작으로 더 큰 비전에 도전하고 있다. 흔하게 부흥하여 큰 숲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이 목사는 향후 500여 평 규모의 체육관 시설을 추가 건축함으로 춘천의 기독인들과 교회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앞장서는 행복한 김 목사와 전선주 사모. 일심교회는 하나님과 이 시대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새한빛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새성전 입당예배

3년 전 눈길 속에 춘천의 땅을 밟으며 축복된 도시 속에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많은 분들의 도우심속에 3주년을 맞이하여
새성전(100평)을 매입하여 입당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일시 : 2006년 12월 10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석사동 프라임존 6층 새한빛교회(현진 에버빌 1,2차 사이)
※전화 : 0505-484-0303, 261-9179(구원친구)

춘천교역자연합회

춘천교역자연합회에서는 "사모합창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지역교회 사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목사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목회자 사모
※ 연령: 제한없음
※ 문의: 017-378-2261(박영식 사모)

| 역사자료

강원도 교회 창립 약사 (略史 4)



강원기독문화연구소 대표
김 기 태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1. 개화기 선교사들의 입국과 영향(1885 ~1 900년)

우리나라에 복음 전파가 허용된 121년 전(1885년), 대한제국의 첫 공식 선교사 아펜젤러는 미국 감리회 소속이고,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이다. 이들이 선교의 기틀을 잡아놓자, 4년 후 1889년부터 오스트렐리아 장로교회, 영국성공회, 케나다장로회, 영국구세군, 미국남장로회, 미국남감리회, 등양선교회 등 세계 여러 교단의 선교사가 잇달아 입국하여 곳곳에서 선교함으로 우리나라의 개화문명과 문화, 교육, 의료, 의식변화, 제도개선, 금융, 산업발달, 주민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속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하디' 선교사

2. 강원도 해안지역 선교는 원산에서 평해까지 (1901~1912년)

감리회는 서울 중심의 선교가 성공하자 그 지경을 넓히려고, 강원도 등북부 항구도시 원산에 1893년 의사 맥길(W.B.Mcgill)을 보내어 시약소(병원)를 개설하였고, 1901년에는 하디 (R.A.Hardie 河鯉泳 하리영) 선교사가 파송되어 등해안 해안선교를 맡아 원산, 간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기성, 평해까지 해안선 1천리길 험산 준령을 넘어 전도하였다.

3. 동해안 최초의 교회는 양양감리교회(1901년)

양양에 기독교가 전래된 역사는 원산에 파송된 하디 선교사가 해안 선교를 위하여 원산에서 배를 타고 대포항에 도착하여 남쪽으로 30리 상거한 양양군 중심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시작되었다. 양양교회는 제1대 유시국 담임목사가 성내리에 있는 기와집을 예배처소로 정하였는바, 이곳은 현제 양양교회에 시무하는 이재풍 장로 선고(先考;아버지)의 집이며 그 후손이 믿음을 의연하게 지켜오고 있다. 양양교회는 제28대 담임으로 김한구(57세) 목사가 부임하여 19년째 창립 105년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다. 양양교회는 1901년 10월 5일 하디 선교사가 복음을 전달하여 교회가 창립되었고, 1919년 김영학 목사가 기미득립만세로 투옥되었으며, 1950년 6.25 공산만행으로 송정근 목사가 순교하는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01년대 감리회 동부지역선교구역

같은 해에 간성 감리교회의 창립(1901년) 기록이 있으나 일제 강점기간과 6.25사변으로 교회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일어났고, 강릉중앙교회는 1902년을 창립년도로 알고 80년사, 90년사를 발간하였으나 100년사를 발간하는 2002년에 문헌을 통한 명증(明證)으로 창립일을 1901년으로 1년 앞당기게 되어 현재 20대 담임, 이첩 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등해안의 교회 창립역사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4. 강원 중부지역은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충주 제천까지 전도(1905~1915년)

서울과 원주는 지형이 평지임으로 선교사들의 왕래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가 늦어졌다. 1898년 매서인(성경판메인)이 원주 인근 경기도 여주, 이천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원주에 와서 성경을 팔게 되었고, 1905년 무스(J.R.Moose 茂雅各) 선교사가 원주를 방문하여 원주읍 교회를 창립, 1906년 횡성, 홍천, 1907년 영월연당, 1910년 평창제일, 1912년 영월중앙, 1915년 충북충주 대소원 교회들이 창립되었다. 원주제일교회는 김명기 목사가 제21대담임으로, 횡성교회는 제27대 류인덕 목사가 담임하여, 강원중부권의 중심교회로 우뚝 서있다.



말 타고 선교구역을 순회하는 초기선교사들

(다음호: 강원도 최초의 장로교회 전래)

| 영혼의 양식

숯불을 피우시는 아버지

요한복음 21: 3-13



박용한 목사
(강원IVF 대표)

매년 추석 때만 되면 고향에서는 돼지를 집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힘들지만 아침 일찍 가서 같이 일하고 갈비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결코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온 식구를 위해 좋은 갈비감을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숙성시켜 추석 전날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이면, 마당에 숯불을 피우시고 도끼로 갈비를 먹기 좋게 손질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 부엌에서는 어머님과 아내 그리고 제수씨가 저녁을 부리나케 준비하여 마당으로 내옵니다. 그리고 우리 3형제는 각자 맡은 대로 숯을 쪼개고 불을 피우고 자리를 마당에 널따랗게 편 후, 아버지의 정성이 들어간 다양한 형태의 돼지갈비를 풍성하게 접시에 쌓아놓습니다.

온 식구가 마당에 나와 한 자리에 앉아서 갈비 굽는 것을 기다리면, 아버지는 "간편하게 밖에 나가 식당에서 고기 사먹으면 편하지만, 이렇게 먹는 것이 힘들어도 얼마나 좋으냐." 하시면서 흐뭇한 얼굴을 지으십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희들이 오면 같이 구워먹으려고 어제 새벽부터 저녁 늦게 까지 수고하시며 갈비를 가지고 오셨다"며 아버지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추석 전날의 번거로운 이 작업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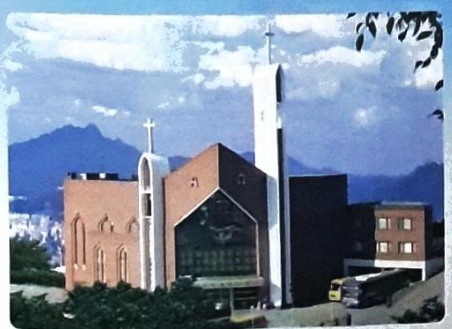
모락모락 피어나는 숯불과 돼지갈비, 그리고 한 편에서 피어나는 정다운 이야기꽃들. 1년에 한 두 번 볼 수 있는 정겨운 장면입니다. 나는 추석보다도 추석전날의 이 행사가 더욱 기대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식구들의 웃음을 마음껏 맛볼 수 있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시고 물고기를 직접 구우시면서, 바다에서 고생하며 일하던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정겨운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직접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고기를 굽고 와서 조반 먹으라는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베드로는 다시 테어나듯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거듭납니다.

숯불을 피우며 고기를 굽던 예수님과 추석전날 돼지갈비를 숯불에 구우시며 자녀들에게 정을 나눠주시는 아버지…. 나는 두 분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또한 두 분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지금도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바라보시며 "와서 조반 먹이라", "숯 피우고 돼지갈비 구워라"고 외치시는 사랑하는 영혼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와 떡을 매일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도끼로 돼지갈비를 다듬으시는 아버지처럼 저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며, 우리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을 위해 차려준 말씀의 음식을 날마다 드시며 사랑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 해를 정리하며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깊이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제일교회



춘천시 교동 113-192 ☎254-6401 Fax255-3813

"춘천 성시신문"과 "강원 기독문화연구소"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탄과,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 하소서
- 춘천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 원종국 -



원종국 목사

[약력]
- 춘천제일감리 교회 담임(2003년부터)
-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구약전공
-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박사(Ph.D)
- 미국 폴러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D.min)
- 목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강사
- 인천 주안, 강원횡성 지방 감리사역임
- 감리교본부실행위원, 사회정신도위원(현)
-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 춘천지역장(현)
-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회장(현)





필요의 후의에 감사드리며
'위대한 영성가들' 책자가
필요 하신 분은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서]
- "위대한 영성가들", 팔복의 영성, 빌립보서 강해
- 행복한 삶에로의 초대, 시집 "빈자리" 등 12종

삶



깨끗한 부자 나누는 부자 홍부자집

홍부자집 홍승찬 장로(순복음춘천교회)편입니다

손님을 예수님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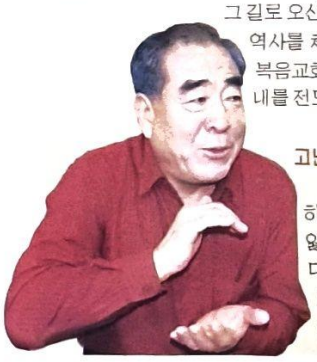
깨끗한 부자 홍승찬 장로. 그의 신앙은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사업하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단순히 구호로 사용하는데 반해 홍 장로는 실제로 손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쓴다. 우선 뜨거운 음식을 담는데는 절대로 멜라민 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컵이나 국그릇은 모두 자기나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멜라민 식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들의 불임 등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모든 음식에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념에 들어가는 고추도 직접 재배한다. 고추를 재배할 때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배 후에는 수차례 깨끗이 씻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시중 제품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약이 잔뜩 함유된 고추를 가지고 양념한 음식으로 손님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 홍 장로의 음식철학이다. 이렇게 철저히 손님을 생각하는 그의 음식철학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님과의 만남

홍 장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6.25 사변 이후. 어느 기도원에 계신 분으로부터 복음을 받아 읽게 된 그는 초등학교 시절, 서울에 있는 가정교회에 다니게 된다. 이후 춘천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잠시 효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성공회에 다니게 되었고 견진성사를 받았으며 군대에 가기까지 계속 성공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군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도 다니고 도선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1959년에 한전에 입사해 춘천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술로 지새던 그는 스스로를 제어할 능력으로 1965년 서울에 있는 한전 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1964년 홍 장로는 직장을 다니던 유영균 권사를 만나 5년간 교제 끝에 1969년 결혼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둘 다 주님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

그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은 1979년. 지방 출장을 가던 도중 기차에서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집사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자신은 불경을 읽고 있었고, 그 집사는 로마서 강해집인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의 권유로 '이것이 복음이다'를 읽고 감상문을 써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는 기독교를 반박하고 불교가 좋단 감상문을 쓰려고 마음 먹었으나 책을 읽는 동안 주님께서 그를 사로잡아 교회에 가고픈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 길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하던 중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는 기도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때 아내를 전도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고난 중에 은혜를 경험하다

그는 한전을 사직한 후 1977년에 제조회사를 경영하였다. 그러나 1980년 부도를 맞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은 홍 장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곡히 도움을 청했다. 주님의 은혜로 1981년 사우디에 해외취업을 하게 된 그는 사우디로 나가기에 앞서 담임목사님께 자신을 구역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청하였다. 사우디 현장에서 구역을 조직하겠다는 의도였다. 구역장으로 임명받은 그는 사우디 현장에서 식사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 4명으로 구역모임을 시작하였고, 이 모임은 후에 80명이상으로 늘어났다.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주님을 더 널리 알리도록 홍 장로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 한번은 현장에 피부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위해 집사 6명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주셨다. 또 양성된 블록을 들다가 척추가 파손된 환자를 한 밤 중에 발전실에 뉘어놓고 세 벽 4시까지 기도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시어 속소로 걸어 들어갔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자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고, 현장소장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홍 장로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상의했다고 한다.



춘천에서의 사역과 비전

1993년 홍 장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고 1995년 춘천에 와서 1996년 1월에 '홍부자집'을 열었다. 춘천에 이사 와서도 주일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했으나 온 가족이 주일마다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힘에 겨울뿐 아니라 또한 춘천에 몸담고 살면서 지역을 외면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에 1998년 순복음춘천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그가 상호를 '홍부자집'이라고 정하게 된 것은 스쿠루지 영감처럼 수전노가 되려는 의미가 아니다. 두 차례 바울이란 상호로 회사경영에 실패한 그는 상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님께 상호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물었다. 그러다가 응답으로 부자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는 부자라는 이름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왜 부자하면 수전노 같은 사람만 생각하느냐, 나누어주는 부자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 이후 홍부자집이라는 이름을 주신 주님의 뜻에 맞게 노인들 무료 식사 봉사를 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에 미자립 교회나 기독단체가 부흥회를 하면 강사와 목회자들에게 가장 좋은 식사 대접으로 섬기고 있다.

홍승찬 장로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주신 믈질을 가지고 개척교회 일곱교회를 섬기고, 일곱 교단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들이 중견목회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연합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며, 해외에 일곱 예배당을 세워 헌당하는 꿈을 꾸고 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한다.

홍 장로는 현재 CBMC(기독실업인회) 춘천지부 회장을 맡고 있다. 각 교단별로 기독실업인회가 있어서 CBMC 활동이 위축되고분이 잘 열리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그는 이 운동에 많은 기독실업인들이 참여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직분이나 교파에 상관없이 기독실업인들이 모여 힘을 합한다면 믿지 않는 실업인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각 교회가 춘천 성시화라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주님께서 홍 장로의 귀한 사역에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일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노래 중의 노래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데
산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 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산타할아버지는 어린아이의 신이며,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었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가 질투라 이름 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출 34:14; 수 24:19)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노래에 대하여 질투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질투를 가지고(민 25:11)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엡 1:3; 약 1:16-17)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며, 아이들로 찬미토록 해야 한다(마 21:15-16).

이 날의 더 증대한 문제인 '하나님께 영광', '화평',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눅 2:14; 마 23:23)과 등방의 현인과 같은 지혜(아 1:8; 렙 6:16; 마 24:15)로 천사들을 부르고, 온 만물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자.

누구의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있는가? 나를 적대하는 자들의 을부짖음을 당신은 듣는가?(약 5:4) 이 기쁜 날에, 이 날이 헛된 날이 아니라(사 58:1-5) 생각나는 은혜가 있어 화해하는 날이 되어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만일 네가 예물을 희생단에 가져오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너를 적대함 이런 것이라도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희생단 앞에 놓아두고 그 길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네 예물을 바치라."(마 5:23-24) 등방의 현인들처럼 당신도 이 날에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당신의 부모가 자식인 당신으로 섭섭해 하며,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 먼저 화해하기 위해 일어서라.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부하 직원이 당신을 원수로 여길지 누가 알겠는가? 화평의 길을 알고(롬 3:16-17) 그 길을 들어가라. 적어도 이날을 그렇게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게 하겠는가? 번적이는 불빛이 겠는가? 번쩍이는 불빛은 술집에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의 하나 됨에 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하나로 완전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보내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요 17:23) 성탄절에 모아진 예물들을(나는 특히 돈을 말하는 것이다. 시시한 과자부스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교회들에게 전부 나눠주라.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성탄절이라고 불리는 이 날에 이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배(belly)가 아니다(빌 3:18-19).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하게 난 아들을 주신 분이시다(요 3:16). 그 아버지에 그 아들들이기를.

노래 중의 노래인 아가(솔로몬의 노래, Song of Solomon)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이 되시옵소서."(아 8:14)라는 기다림으로 끝을 맺는다. 성경도 "이 일들을 증거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되,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 예수님, 과연 그러하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계 22:20-21)하며 주님의 오심에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화답으로 끝을 맺는다.

송년회로 이 모임 저 모임 기웃거리기보단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일 것을 두고"(살후 2:1) 깨어 있기를 바란다. 성탄절로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하고, 12월로 이 해를 보내면서 헛되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죄짓는 일들을 하지 말고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기를 바란다(벧후 3:13-14).

[편집부 이 영 규]

예 향

주님을 닮아가는 삶

'큰 바위 얼굴'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어니스트가 살고 있는 마을 산꼭대기에는 전설 속의 '큰 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모든 동네사람들은 그 바위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 마을을 구원하고 큰일을 이루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어려서부터 그곳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인공이 자라는 동안 마을 출신의 훌륭한 재력가와 위대한 장군과 훌륭한 사상가가 차례로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그때마다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어니스트도 늙어 노인이 된 어느 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어니스트인 것을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인이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닮아가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조영춘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주천양교회
증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헤비타트춘천지회	엔투어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강원기독문화연구소	김 기 태
국민일보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홍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관 호	이 학 규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포·토·에·세·이

세모의 기도

시. 최 규 창



주여, 또다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찬바람만이 우짖는 거리마다
자선냄비가 울고
크리스마스 캐롤마저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주여, 또다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아침부터 쌓았던 탑은
아직도 시간과 정성을 기다리고
게으른 손과 발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또다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찬바람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어디든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평화가 북녘까지 강물처럼 넘치는 세상
벽과 벽, 3·8선의 철조망을 녹이는
주의 뜨거운 사랑을 주옵소서

행사안내

▣ 평생교육원 인재양육 개원식 안내 ▣

일시: 12월 13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춘천CBS방송(운교동 Y신협) 3층 세미나실
원장: 김성호 목사

▣ 제 8회 강원 청소년 영화제 ▣

1. 대상: 강원도 청소년(2인이상 공동작품)
2. 주제: <우리(청소년)의 문화, 우리가 바라본 세상> ※제시된 주제외의 작품도 응모 가능
3. 접수마감: 12월 2일(토)
4. 주최: 강원도교육청, 춘천YMCA
5. 후원: 강원방송(GBN)
6. 문의: 춘천YMCA(☎ 255-1008.9)

▣ 월드비전 ▣

♣ 학교사회사업
1. 일시: 12월 6일(수) - 12월 8일(금) 09:00 - 12:00
2. 장소: 남춘천중학교 3학년
3. 참석예상인원: 3개 학급(100여명)
4. 내용: 반별 토론 및 모둠활동을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습득 및 예방

♣ 자문위원회의
1. 일시: 12월 7일(목) 18:00 - 19:00
2. 장소: 복지관 회의실
3. 내용: 복지관 사업의 효율적 진행

♣ 제17회 월드비전 춘천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1. 일시: 12월 9일(토) 16:00 - 18:00
2. 장소: 춘천시민회관

♣ 연합사랑방모임
1. 일시: 12월 12일(화)
2. 장소: 다현뷔페
3. 참석예상인원: 등록가정 200여명

♣ 노인주간보호센터 보호자교육 및 작품전시회
1. 일시: 12월 15일(금) 18:30 - 20:30
2. 장소: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3. 문의: (033)254-7244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조 은 희 권사(춘일교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온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37세에 주님을 영접해 어느새 1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언제나 주님은 미소도 마음도 그대로이십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도 했고 마음을 아프게도 했는데, 나의 아버지께서는 항상 나에게 미소를 지우십니다.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아버지를 만나면서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너무 아픈 상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억들... 하지만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상처와 아픔도 그분으로 인해 치유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상처는 사랑하는 땝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달래기 위해 눈물로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아버지께서는 위로와 사랑으로 땝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으며, 더불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곳에서 지금의 며느리도 만나게 하셨으며 귀한 손자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아들가족은 찬양사역자로서 전국투어와 해외단기사역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항상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모습과 입술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늘진 이웃과 고통 중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신 아버지와 묵묵히 도와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 교회 가족들에게서 받은 사랑을 세상사는 동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간청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 영 춘
최 영 조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김 춘 배
김 미 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춘천성시신문사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사 설



반복되는 후회와 결심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히말라야 산에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새가 있다고 한다.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이 새는 집이 없어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내일이면 집을 지어야지. 내일이면 집을 지어야지"라고 결심을 하면서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고 운다고 한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히말라야의 그 아름다운 자연에 매혹되어 정신없이 놀면서 하루를 그냥 보낸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밤이 되면 추위에 떨면서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고 운다고 한다.

지금은 그 새가 집을 지었을까? 생각하건대 마음으로 하는 결심만이라면 아직도 추위에 떨겠지만, 행동으로 한 결단이라면 따뜻한 집안에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새는 아직도 집은 짓지 않고 밤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고 운다고 한다.

는 깜빡할 사이에 올해 말이 되어 가고 있다. 성탄절 추리에 점등이 되고, 년 말의 냄새가 물씬 풍겨진다. 년초에 "내일이면 집 지으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집 지으리"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내일이면 집 지으리"가 되었다.

년 초에는 혁신 도시 문제로 뛰어다녔고 후반기에는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 문제로 마음이 분주했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혜택을 볼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로 여겨지는 것 같은 인상으로 끝나고 말았다.

도시민들의 생활 대체과 도시 균형 발전은 "내일이면 집 지으리"세의 모습 그대로인 것만 같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따뜻한 집을 짓는다. 그러나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을 때가 많다.

2006년 말이다. 춘천기독교 연합회장으로서의 임무도 끝났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고 하면서 끝을 내고 있기에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후회와 결심이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따뜻한 집을 짓기를 원한다.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교회도 정말로 따뜻한 집을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집지으리라"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뉴스시간에 나오는 국정도 도정도 시정도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집지으리라"가 되고, 그래서 극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당장 집지으리라"가 되는 실천적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본다.

❀ 알려드려요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목동모임
일시: 12월 9일(토) 오후6:30 장소: 베드르선교센타 5층 강의실
2) 예스컴 프레이즈
내용: 예수님 생일잔치(기득등이리 공연)
일시: 12월 16일(토) 오후6:30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강사: 김한철 전도사(춘천제일순복음교회)
문의: 244-5400/010-9287-5170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경원지역(경기, 강원) 금식 원단수련회
일시: 12월 26(월) ~ 29(금) 회비: 3만원
문의: 254-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브르스길라(중보기도)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한신아파트 맞은편)
대상: 가정주부(관심있는 자메님)
3) 강원유스캠프
일시: 2007년 1월 4일(목)-6일(토)
주제: Holy Fire 롬12:1-2 강사: 우성환, 박세훈 간사
장소: 둔내유스호스텔 회비: 5만5천원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IVF
1) AMP 종강예배 및 파송식
일시: 12월 2일(토) 오전9시 장소: 춘천IVF회관
2) 제 27차 정기총회
일시: 12월 9일(토) 오후5시 장소: 춘천IVF회관
문의: 252-5200

◆어린이전도협회
1) 3일 클럽
일시: 2007년 1월 2일(화)~6일(토) 4박5일 숙박
장소: 전도협회 지정장소
등록마감: 12월 9일까지 무료, 이후 25만원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

◆JDM
1) 한국 간사회
일시: 11월 30일(목)~12월 1일(금) 장소: JDM훈련센터
2) 전체 종강예배
일시: 12월 7일(목) 오후7시 장소: 은누리교회
3) 겨울 집회
일시: 12월 20일(화)~30일(토) 장소: 양구장로교회
대상: 발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
문의: 252-3192 / 011-9058-3192.
4) 청소년 수련회
일시: 1월 16일(화) ~ 19일(금) 장소: WDTI(세계제자훈련원)
회비: 65,000원 대상: 중고등부
문의: 252-3192 / 011-9058-3192

◆GBT성경번역선교회
1) 비전기도회
일시: 12월 4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삼광교회
강사: 차빕립 선교사(동남아 WC종족)
2) GBT 춘천지부 이사회
일시: 12월 6일(수) 오후4시 장소: 에덴교회(벨붕드 옆)
3) GBT설립 2주년 감사예배
일시: 12월 6일(수) 오후7:30 장소: 에덴교회
강사: 이용남 선교사(WMC대표)
4) 위클리프스쿨 평가회
일시: 12월 14일(목)~16일(토) 장소: 포항 한동대
5) GMF한국해외선교회 연합수련회
일시: 12월 26일(화)~28일(목) 장소: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
문의: GBT춘천지부 033)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033@gbt.or.kr]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몽소리워십댄싱선교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7-374-2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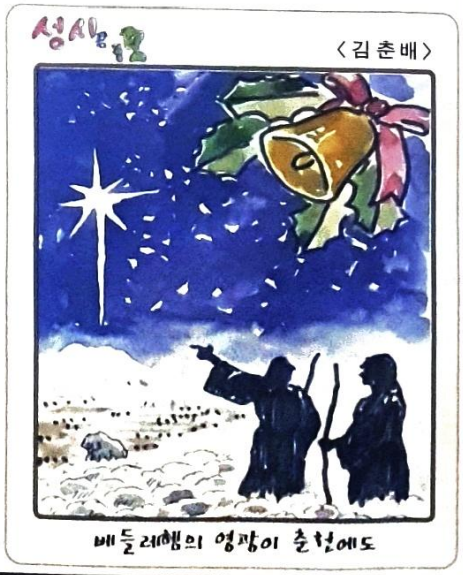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
문의: 256-7579 018-315-7579 지광이선교회
(신광교회 유근일목사)

◆성시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6시30분
장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와이신협3층)
문의: 256-1260

◆UBMK(울란바트르 선교사 자녀학교)
헌신한 교사 및 후원자를 찾습니다.
문의: 이영규 목사 019-9224-0690, 243-0691

◆2007년 신년목회 준비세미나(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일시: 12월 5일(화) 오후 3시~9시
장소: 춘천주항교회(동부A 후문 ☎256-3927)
문의: 이병현목사(017-254-3162)
주최: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교역자연합회 수련회
일시: 12월 4일~5일(4일 오전7시 태백가든에서 출발)
장소: 내장산, 변산반도



교육인적자원부등록 사회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21c 무한경쟁시대 인재를 찾고, 기르고, 배출하는 것은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묻어두고, 시장시켜 두었기에 자기의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평생교육원 "인재한국"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여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원 인재한국 프로그램 안내 [사회복지분야 자격취득과정 모집안내]

과 정 명	요일	강의시간	정원	입 학 자 격	특 전	총 수업
노인(케어) 복지사	월/화	오후6시 -9시	25	건강한 남/여 58세 전 후	수료 후 자격증 취득	72시간
요양(간병) 보호 사			20	학력 제한 없음		
심리 상담사	화/목	오후6시 -9시	20	고졸이상, 상담전문가로 활동하실 이	수료 후 자격증 취득	90시간
성폭력상담사	목	오후6시	15	전문대졸 이상. 성폭력상담소 운영.	수료 후 민증서 (자격증) 교부	64시간
가정 폭력 상담사	목	오후6시	15	전문대졸 이상. 가정 폭력상담소 운영	수료 후 인정서 (자격증) 교부	42시간
장례 지도사	금	오후6시	30	장례업무 전반 관심 갖고 활동할 이. 종교계지도자	수료 후 자격증 취득	90시간

평생교육원 인재한국 개원

■ 평생교육원 인재한국 프로그램 안내 [일반분야]

과 정 명	정원	요일	수업 시간	강 사	특 전	총 수업
리더십 개발	20	화	오후6시-8시	김남현 박사 (전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과정 단계별 수료증 수여 (1, 2, 3단계)	20시간
웃음치료요법 대체의학	20	토	오후2시-5시	박찬웅 교수 (대림대오 건강협회 이사)	수료 후 자격증 취득	30시간
독서 인재 개발 교실 (이키피아)	30	목 금	(오후반) 오후7시-10시 (오전반) 오전9시-12시	최승만 교수 (한국코치 학습개발원) 최성환 교수 (이키피아인재개발원)	수료 후 자격증 취득 (초급 24시간) (중급 36시간)	60시간
레크레이션 교실	30	토	오후2시-5시	정진완 교수 (전 한대레크협회장)	수료 후 자격증 취득	30시간
작곡 교실	10	목	오후5시-7시	김정배 교수 (한교대 음악교육학과 2)	과정 단계별 수료증 수여.	40시간

- 구비서류: 본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이력서, 사진 4매(3x4)
- 모집기간: 2006년 12월 1일 ~ 2007년 1월 5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 개강일시: 2007년 1월 8일 (월) 오후 5시 30분
- 문 의 처: 본원 사무실(춘천 CBS 3층) ☎033-241-8801, 8802 HP 011-372-9100, 016-411-141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장학금 전달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이명신)은 지난 10월 21일 제20회 춘천연합찬양축제를 진행하여 춘천지역의 교회, 직장선교회, 업체를 통해 모금된 1,425만원의 장학금을 춘천지역 25개 초·중·고등학교 71명의 학생에게 각 20만원씩 지원하였다.

한국복지재단 권역별 case conference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홍창표)은 10월 31일(화) 오후2시 기관 강당에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사의 임상능력 향상을 위한 권역별 case conference를 실시하였다. 이날 한국복지재단 산하기관 중 서울·경기·강원 권역의 16개 사업기관(지부, 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참석하여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과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일심교회 입당예배



동면 장학리에 새 성전을 건축한 춘천일심교회(담임:이순주 목사)는 11월 4일(토) 입당예배를 드렸다.

교역자연합회 총회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회장:최현묵목사)는 11월 9일(목) 오전11시 평화감리교회에서 제4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한군목사(평화교회), 부회장 피종호목사(나눔교회)와 문충식목사(화목교회), 총무 유호선목사(동춘천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교역자연합회 교회 탐방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회장:한군목사)는 11월 23일(목) 경기도 광주평화교회(담임:이동현목사)를 방문하여 교회운영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고 지역사회봉사의 현장을 탐방하였다.

춘천기독교연합회 2006정기총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박상호목사)는 11월 30일(목) 오전11시 소양성결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칙수정을 통해 춘천의 변화와 기독교단체들의 연합,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임총무와 실무위원들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성서본부를 직할실행단체로 활동하도록 승인하였다. 총회에서는 2007년 신임회장으로 이원호목사(소양성결)를 추대하였고, 수석부회장 한군목사(평화감리), 부회장 이무식장로(석사감리), 상임총무 김상호목사(강촌감리), 총무 정재호목사(늘사랑장로), 수석부총무 이주호목사(소양제일성결), 부총무 김덕용목사(중부장로)와 김용현장로(순복음춘천), 서기 이춘일목사(베드로순복음), 부서기 이병환목사(반석감리), 회계 김영병장로(동신장로), 부회계 김용배장로(소양성결), 감사 박인관목사(광염감리)와 마철규장로(춘천제일장로)를 각각 선출했다.

춘천시 장로교 연합회 총회



춘천시 장로교 연합회(회장:지용천목사)는 11월 29일(수) 오전11시 희락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문충식목사(화목교회)가 신임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부회장: 김치홍목사(교동), 권기호목사(시민), 박수권목사(로뎀), 김종의목사(광명), 정명훈목사(예강), 허대영장로(춘천중앙), 김주극장로(제일), 임길석장로(동부) 총무: 정재호목사(늘사랑), 부총무: 김원중목사(강남온누리) 서기: 윤대영목사(춘천사랑의), 부서기: 이병철목사(주향) 회계: 김학구장로(동부), 부회계: 한상수장로(영광) 감사:지태성목사(춘천), 전은풍장로(제일)가 각각 선출되었다.

춘천성시합창단 창단식



춘천흘리클립(회장:이학규장로)은 11월 13일(월) 오후7시 석사감리교회에서 춘천성시합창단 창단식 및 감사에 배를 드렸다. 춘천성시합창단은 지휘자 민성숙교수(명지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35명이 모였으며, 앞으로 약 15명을 더 선발하여 춘천 성시화를 위해 아름다운 화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흘리클럽 1일 수련회



춘천흘리클립은 11월 17일(금) 경기도 광주 평화교회(담임:이동현목사)와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견학하고 1일 수련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였다.

청소년인권토론회



월드비전의 복지관 등록아동 4명과 인솔자 1명이 11월 18일(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아시아 소수 아동, 청소년 인권토론회"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한국사회 소수청소년 인권과 행복한 삶, 혼혈아동 청소년의 삶과 인권"을 주제로 300여명의 아동, 청소년에게 혼혈아동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열렸다.

장로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는 11월 19일(주일) 오후7시 석사감리교회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순방에 배를 드렸다. 이날 박한병장로(춘천중앙성결교회)가 이임하고 이무식장로(석사교회)가 취임하였다.

사암교회 이전예배



동내면 거두리로 이전한 사암교회(담임:최상도목사)는 교회명칭을 사암중앙교회에서 사암(佐菴)교회로 새롭게 변경하고 부흥을 소망하며 11월 26일(주일) 오후4시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따뜻한 온정 김장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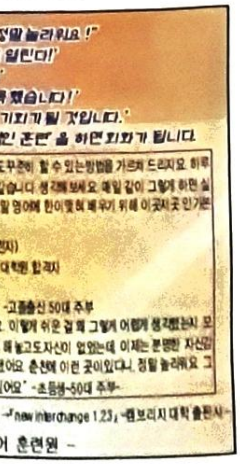
월드비전은 동절기를 대비하여 11월 한 달 동안 지역의 업체,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 복지관에 등록된 재가 어르신 117가정과 등록 아동 217가정에게 김장 김치를 제공하여 겨울철 식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김장김치를 위해 후원하고 봉사하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였다.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인트로단계' 5기모집)"

"서울 친구소개로 알았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영어회화 기적이 일어난다! "단 한 달 만에 입이 열린다!"
'이미 춘천스포자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
'반신반의로 왔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100% 등록 했습니다!'
'중학교 영어를 준비하는 중학 예비생들에게도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이해 가아닌, 특별하다고 최고라는 미라클식 방법으로 '입증확인 훈련'을 하면 회화가 됩니다.

1. 개강일시: 2007년1월 8일(월) 오후 6시 40분(시간엄수)
2. 기 간: 1월 8일(월)~2월 2일(금)(매주 월화목금 6:40~10:10PM) 1일 3시간30분씩 1개월(16일간 총56시간)학습 및 훈련.
3. 훈련단계및 교재: '인트로단계' 5기, 교재 : 『interchange intro』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4. 장 소: '꿈이있는교회'(교통편: 카플, 25번,26번,23번, 28번버스)
5. 본훈련소는: ①초5, 6년 중 고등학생,대학생, 일반 등 누구나 참여만하면 영어컴플렉스 해결! 꿈과 비전을 심어 준다.
②영어회화를 공부하다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 강사 보다 훈련생이 더 많을 많이 하게 한다.
③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최단 기간에 영어 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④초등생부터 목사님, 선교사님, 박사님, 영어 선생님, 유학준비생, 대학생, 주부들이 한자리에서!
⑤출국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해외어학연수, 유학기기 전에 미리 반드시 거쳐야 할 곳.
⑥경험자의 입소문을 듣고 타지역(서울, 부산, 통창, 평택 등)에서도 원정 와서 훈련 받는 곳.
⑦영어 핵심을 통해 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 전반적으로 능통을 원할 때른 독해에 대해 중요한 기초를 확립할 수 있으므로 예비 중학생 이나 영어에 자신 감을 원 하는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6. 훈련등록마감 12월 27일(수)까지 선착순마감(조기마감을 주의 하세요). (☎264-0991, 011-386-6239, 010-8250-0988)
7. 공개 설명회: 1차 11월 25일(토) 오후5시~6시30분 / 2차 12월 16일(토) 오후5시~6시30분

※훈련생자격: ①기독교 신앙인 ②본 훈련원 수료자의 추천을 받은 자이거나, 반드시 2차의 공개 설명회 중 1회 참석 한 자 ③훈련등록을 원한 자로서 첫시간(8일)은 반드시 참석해야 함. 상기 사항이이충족 시 훈련생 자격을 부득 취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영어회화 막연했었는데 이젠 확신이 생겼어요" -고등학생 2학년 주부
"영어회화 망설였었는데 이젠 할 수 있을 것같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고졸출신 50대 주부
"업무가 늘어 "점에서 영어로 말을 했어요" "걸 가는데 영어가 튀어나와요" "영어가 너무쉬워요. 이렇게 쉬운 걸로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렵게 느껴지던 문법이 쉽게정리가 되구요. 대강 단어를 외워 맞추며 독해를 했지 해놓고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독해를 하고또한 속도도 이주 빨라졌어요" "시험에 있는친구에게 내가 들고훈련하게 됐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 친구는 서울에서등록3시간째 치고와 시험에 합격했어요" "예비중학생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어요" -초등생-50대 주부-

• 본 훈련원 훈련 일정 "인트로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교재 『interchange intro』 → 『new interchange 1,2,3』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참조: '춘천중앙감리교회' 홈페이지(http://www.chmchurch.org/main.htm)커뮤니티 자유게시판 '800영어회화'를 참고하세요. - 꿈이 있는 선교 언어 훈련원 -